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로 인해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18년 동안이나 암몬과 블레셋의 손에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 입다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샬롬(평화)이 임할 무렵,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온 이유는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에 자신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를 찾아온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짜고짜 사사인 입다와 그의 집을 상대로 죽음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는 지도자에게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전에도 사사 기드온에게 비슷한 일로 시비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삿 8:1,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어떤 지파들은 이같은 불만을 제기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사 기드온과 입다 시대를 지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주도권과 지도자에 대한 간섭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입다의 출신 배경이 약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더 무시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인 입다의 대답에서 볼 수 있습니다(2-3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사사 입다의 말에 따르면,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사 입다의 말이 사실이라면 에브라임은 입다의 도움을 거절하고도 뻔뻔하게 입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내부의 문제로 인해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내부적 싸움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 입다의 말에 수긍하지 않았고 그들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4절하,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4절 하반절에 기록된 이 말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친 망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근거없는 이야기로서 본래 길르앗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로서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민 26:29,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인 것은 맞지만 에

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사 입다는 기드온과는 달리 에브라임 사람들의 행태를 더이상 참지 못하고 응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함께 에브라임 사람들 사만 이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에 정착한 에브라임 지파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첫번째 인구 조사 때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은 45,000명이었습니다. 그 후 사사 입다의 시대는 약 200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예전보다 더 많은 남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만 이천명'의 숫자는 에브라임 지파에 큰 충격과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제 외부적인 적들 뿐만 아니라 동족끼리의 갈등까지 생기게 되면서 나라는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는 중세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부의 죄와 부패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셨습니다. 그것이 개신교의 출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의 영적 싸움을 이기고 이 세상의 세속주의와 우상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악한 영과의 거룩한 대결이 아니라 교회의 주도권 문제, 물질의 문제등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것이고,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욕심과 갈등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영적 회복은 바로 나 자신의 영적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갈망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국가를 위한 기도: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혼란한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들어서게 될 차기 정부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이철남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